

중국 조선족의 인구발전과 분포변화의 추세

김 병 호

— 목

차 —

- | | |
|------------------------|---|
| 1. 중국 조선족 인구발전의 특성과 추세 | 3. 조선족 인구 및 분포발전 변화 추세가 조선족 자체의 발전에 주는 영향 |
| 2. 조선족의 분포변화의 특성과 추세 | |

민족은 사회발전의 역사적 현상이며 역사발전의 사회적 현상이다. 객관실체로서의 민족은 사람들의 공동체적 존재형식의 하나인 동시에 특정한 사회적 존재형식의 하나이며 역시 종족 존재형식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민족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민족의 민족성 발전과 사회성 발전 및 민족인구 발전의 통일을 가져오며 민족자체의 특성, 내부적 구조, 소질 및 사회환경, 자연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중국 조선족의 인구발전과 분포변화는 조선족 발전의 중요한 내용과 표현으로서 모종 의미에서는 중국 조선족의 장래 발전을 예시한다.

1. 중국 조선족 인구발전의 특성과 추세

민족의 인구구조와 인구발전은 일종의 민족발전의 결과이며 표지이다. 중국 조선족의 인구구조와 발전은 조선족의 역사적 발전, 역사적 전통, 경제생활, 문화생활 및 그들이 처한 사회환경과 자연환경의 독특성으로 인하여 자세한 특성을 나타낸다.

1) 조선족 인구의 절대수가 완만(緩慢)하게 늘어나고 상대적 비례가 점

차 낮아진다.

민족 인구의 절대수가 일정한 정도로 늘어나는 것은 민족생존과 발전의 필연적인 조건이다. 중국 조선족은 새중국이 성립될 때 백만인구를 넘었던 민족으로서 40여년 동안 인구수가 일정한 정도의 증장률(增長率)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조선족 인구증장률의 증장 속도는 전국이나 소수민족의 평균증장률보다 낮으며 상대적 비례가 하강선을 긋고 있다. 전국적인 4차례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1953년은 1,120,405명으로서 0.193%를 차지하고 1964년은 1,339,569명으로서 0.185%를 차지하며 1982년은 1,765,204명으로서 0.175%를 차지하며 1990년은 1,920,597명으로서 0.169%를 차지한다.

조선족 인구가 전국 소수민족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백분비는 1953년에는 3.099%, 1964년에는 3.348%, 1982년에는 2.625%, 1990년에는 2.105%이다.(도표 1을 보라)

표1. 전국총인구, 소수민족총인구 가운데서 조선족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항 목	1953년	1964년	1982년	1990년
전국총인구수에서의 조선족인구비	0.193%	0.185%	0.176%	0.169%
전국소수민족총인구에서의 조선족인구비	3.099%	3.348%	2.625%	2.105%

주: 표에서 보면 1964년의 조선족 인구가 전국 소수민족 총인구수에서 차지하는 비례율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그 주요한 원인이 이 시기 조선족 인구의 절대수 증장률(絕對數增長率)이 특별히 높고 빨라서가 아니다. 이 시기 조선족 인구가 약 22만명 가량 늘어났는데 연평균 늘어난 수는 2만도 안 되며 11년 동안 늘어난 인구수는 19.56%밖에 되지 않으며 연평균증장률은 1.778%밖에 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 시기 많은 소수민족들의 인구증장에 특수한 현상이 나타나

전국소수 민족의 인구증장률이 12.59%밖에 되지 않았기때문이다. 그 주요한 원인은 당시의 계급투쟁, 정책관철에서의 불찰, 민족사업에서의 오류 등으로 소수민족 인구에 기계적 변동(機械的變動)이 나타나고 원래의 소수민족 성분을 속이는 등 민족인구의 사회적 변화가 많았기 때문이다. 1953년부터 1957년사이, 끼르끼르족(珂爾珂族), 로씨야(俄羅斯)족, 우즈베크(孜烏別克)족, 따따르(塔塔爾)족, 4개 민족의 인구가 줄어들고 1957~1964년 사이에는 장족(藏族), 로씨야족 투자(土家)족, 징퍼(景頗)족 등 17개 민족의 인구가 줄어들었는데 그 가운데서 6개 민족의 인구는 30% 이상 줄어들었고 장족의 인구는 27만여명이나 줄어들었다.

2) 조선족인구의 자연증장율이 내려가고 있다.

민족인구의 절대수가 늘어났는가 늘어나지 않았는가, 그 늘어남이 빠른가 늦은가 하는 것은 민족인구의 자연증장률에 의하여 결정되고 표현된다. 인구의 자연증장률은 인구의 출생률과 사망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수인데 중국 조선족 인구의 출생률과 사망률 및 자연증장률은 곡선적인 발전을 하여 왔다.

40년대 길림성 조선족부녀의 총화생육률(總和生育率)은 평균 5.12명이고 일반적 사망률은 24%이며 갓난 어린이의 사망률은 100%였다. 해방후 조선족 부녀의 총화생육률이 한 동안은 늘어난 1953년에는 5.97명(길림), 1963년에는 6.71명까지 되었었다. 60년대 중기부터 조선족 부녀의 총화생육률은 점차 내려가기 시작하여 1981년에는 1.91명으로 내려가고 1986년에는 1.85명으로 내려갔다. 중국 소수민족 부녀들의 총화생육률은 1981년에는 4.49명, 1986년에는 3.63명이었다. 따라서 조선족 가운데서 3태(三胎)이상을 생육한 부녀가 1981년에 이미 8.98% 밖에 되지 않았다(한족은 24.69%를 차지했다).

경제, 문화, 의학 등 조건들이 개선되면서 조선족 인구의 사망률은 6.93%로 내려갔는 바 표준사망률이 7%이하로 내려간 5개 소수민족 가

운데의 한 민족으로 꼽혔다. 사망률이 가장 높은 민족은 부랑(布朗)족으로서 사망률이 13.13%나 된다. 특히 조선족의 갓난 어린이의 사망률이 낮아져 30.73%로 내려감으로써 갓난 어린이 사망률이 제일 낮은 두 소수민족 가운데의 한 민족으로 되었다. 전국의 갓난 어린이 사망률은 34.68%이고 소수민족 가운데서 갓난 어린이 사망률이 가장 높은 민족은 끼르끼스족으로서 162.84%나 된다. 조선족인구의 자연증장률은 1982-1990년까지 줄곧 10여%를 유지해오면서 '적게 낳고 적게 죽고 적게 늘어나는 (低生育, 低死亡, 低增長)' 현대형인구모식에 접근하고 있다.

3) 조선족인구의 지역적발전이 불균형적이고 잡거(雜居), 산거(散居)지역의 인구발전이 비교적 빠르다.

1953-1990년까지 중국의 조선족 인구가 71.47% 늘어났는데 조선족 집거지(聚居地)인 연변 자치주는 50% 좌우 늘어났고 연변을 포함한 길림성은 56.33% 늘어났으며 조선족 집거지에 속하는 흑룡강성은 95.41% 늘어나고 요녕성은 73.40% 늘어났다. 1982-1990년까지 조선족 인구가 8.73%밖에 늘어나지 않았는데 조선족 산거지에 속하는 내몽골은 이 시기 조선족 인구가 28.78%나 늘어났으며 동북3성과 내몽골을 제외한 기타 지역은 조선족 인구가 143.26%나 늘어났는 바 이는 이 시기 조선족 인구총증장백분률(總增長百分率)의 16.4배나 된다.

4) 조선족과 기타 민족이 통혼(通婚)하여 이루어진 혼합가정이 조선족 인구증장에 특수한 영향을 주고있다.

민족통혼의 사회적 현상은 민족의 잡거(雜居), 산거(散居)현상과 상호간의 문화교류 및 민족관계융합(融恰)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한 결과이며 반영이다. 중국의 조선족 인구 가운데에서 다른 민족과 혼인관계를 맺고 있는 인구비례가 1949년부터 40여년 동안 계속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를들면, 1982년 흑룡강성의 조선족 가정 가운데서

조선족이 다른 민족과 통혼하여 이룬 가정이 8.11%를 점하였고 모 큰 도시의 조선족이 비교적 집중된 한 직장에는 혼합가정이 무려 전반 조선족 가정의 근 20%를 차지한다. 지금 중국은 민족정책의 우월성으로 하여 민족혼합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본인의 요구대로 민족성분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데 그 수나 비례에서 일반적으로 소수민족 쪽으로 치우쳐지는 경향이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족의 인구발전과 증장에 특수한 영향적 요인으로 된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흑룡강성의 조선족 가운데서 다른 민족과 결혼하여 이루어진 가정이 조선족 인구증장에 영향을 끼친 인구가 약 만여명 가량 된다.

조선족 인구의 현상태와 인구발전과정에 나타난 특성은 장래 조선족 인구발전의 일부 추세를 예시하고 있다.

1) 조선족의 인구발전은 속도가 느리고 온당하게 증장하는 추세이다.

조선족의 인구발전은 60년대 중기부터 줄곧 전국이나 소수민족의 평균증장률보다 낮은 바 1964년부터 1982년까지는 각각 11.95, 37.65 백분점이 낮고(30.75%와 42.70%, 68.40%) 1982년부터 1990년까지는 각각 3.72, 26.79백분점이 낮다.(8.73%와 12.45, 35.52%)(도표 2를 보라)

표2. 조선족, 전국, 소수민족의 인구증장률 비교표

학목	년도			
	1964-1982 증장%	1953-1982 증장%	1982-1990 증장%	1953-1990 증장%
전국평균증장률	42.70%	71.42%	12.45%	90.74%
소수민족평균증장률	68.40%	89.28%	35.52%	93.78%
조선족평균증장률	30.75%	57.48%	8.73%	71.42%

주 : 1953년부터 1990년까지의 증장률가운데서 대륙, 소수민족의 증장률이 95%가량 된다.

80년대부터 조선족 부녀의 총화생육률은 줄곧 2태(胎)이하였는 바 그것은 또한 인구교체수준(人口更替水率)이하라는 것을 말한다. 이미

1981년에 아이 하나만 생육한 부녀가 65.61%, 둘을 생육한 부녀가 25.01%, 셋을 생육한 부녀가 6.07%, 넷 이상을 생육한 부녀가 2.32% 밖에 되지 않고 생육주기가 가장 짧았다.

조선족의 연령중간자리수(中位數)는 1986년에 이미 26.8세로 올라갔는 바(한족은 24.4세, 소수민족은 평균 20.9세) 조선족은 이미 비교적 높은 층차의 성년형 인구와 안정형 인구단계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소수민족 가운데 고산족, 조선족, 로씨야족 세 민족만이 이 유형에 속하는데 조선족 인구는 1982년부터 1990년까지 연평균증장률이 1.09%로서 인구고봉기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2) 조선족의 인구구조는 더욱 합리화되어가고 민족소질은 날로 높아가는 추세이다.

성별비례는 인류사회의 사회생태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남녀성별구조의 합리적인 비례를 실현하는 것은 사회발전과 민족의 여러 방면 발전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조선족 인구의 성별비례는 50년대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고 1964년 제2차 전국인구조사 때는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많은 상황이었으며 1982년 제3차 인구조사 때는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많은 추세(100:97.7)였으며 1987년에는 남성이 여성보다(100:103.6)많은 추세를 보여 주었는데 그것은 조선족의 성별비례가 기본상 균형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특히 조선족 인구 가운데서 20세부터 39세까지의 결혼연령기에 있는 남녀의 성별비례가 대체적으로 균형된다.

인구연령구조는 민족 인구구조의 중요한 내용이며 또한 인구발전상황의 표지이기도 하다. 조선족 인구의 연령구조는 1982년에 이미 성년형 인구단계에 기본상 들어섰으며 1987년에 와서 일부 지표(指標)가 또 일정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987에 소년아동의 비례가 한족은 28.2%이고 소수민족은 평균 35.8%일때 조선족은 24.7%밖에 되지 않으며 노인비례가 한족은 5.5%를 차지할 때 조선족은 4%밖에 되지 않으며

연령중간자리수가 한족은 24.4세, 소수민족은 평균 20.9세일 때 조선족은 26.8세에 달하였다.

민족인구의 교육정도는 한 민족의 교육, 문화, 과학의 발전정도를 나타내며 그 민족의 소질정도를 반영한다. 조선족은 이미 기본상에서 초급중학교육을 보편화하였고 고급중학교육을 보편화하고 있으며 청장년들 가운데서 문맹이 없어졌다. 1987년에는 12세 이상의 인구 문맹률이 7.2%로 내려감으로써 (한족은 24.6%, 장족은 71.6%) 중국의 여러 민족 가운데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민족으로 되었다. 특히 조선족 남성들의 문맹률은 1982년에 이미 4.69%밖에 되지 않았으며 (전국의 남성문맹률은 21.9%)이 몇 해 사이에 또 대폭적으로 내렸었다. 1987년에 평균 천명중 대학교육수준의 인구가 44.1명이나 되었으며 (한족은 10.8명, 소수민족은 평균 6명) 조선족 가운데서 재교대학생이 전민족인구의 14.06%를 차지한다.

민족인구의 직업구조는 그 민족의 경제문화 발전정도를 반영할 뿐 아니라 사회생산과 사회관리 발전정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조선족 인구 가운데서 재직인구가 총인구수의 반 이상을 차지하며 한족과 균형된다. 재직인구 가운데서 노력노동자가 차지하는 비례는 한족이나 소수민족의 배나 배이상 되며 각 부문의 전문기술 일군들이 차지하는 비례는 한족이나 소수민족보다 높다. 또한 국가기관이나 당정기관, 군중조직, 기업단체들에서 책임자로 일하는 인수가 차지하는 비례는 한족이나 소수민족보다 배나 두배 이상 높다. 이에 반하여 농업기술, 목축업, 어업 등에 종사는 노동자수가 차지하는 비례는 한족이나 소수민족보다 훨씬 낮으며 생산노동자와 운수노동자가 차지하는 비례는 한족이나 소수민족보다 거의 두배나 높다.

3) 조선족의 결혼연령기 인구가운데서 다른 민족과 결혼한 인구절대수가 올라가는 추세이다.

2. 조선족의 분포변화의 특성과 추세

오늘의 민족 분포정황은 지난날의 민족발전에 의하여 결정되는 바 오랜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중국 조선족은 인구나 지역분포상에서 흩어져 사는 가운데 집중되어 살고 한족들과 교차되며 섞여 사는 가운데 자기들의 촌부락을 이루어 집중해 사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시대의 발전과 민족의 발전에 따라 조선족의 분포정황도 일정한 변화를 보이면서 자체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1) 동북3성 이외의 분포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민족의 분포지역은 그 민족의 기원, 역사적 이주, 경제생활 등 요인들과 관련될 뿐 아니라 또한 민족의 문화, 교육의 발전과 사회의 정치, 경제 등 활동의 발전과도 관련된다. 따라서 민족 분포지역이 늘어나는 것은 민족발전의 추세이기도 하다. 매 민족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집거지역이나 비교적 집중된 지역들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이 사는 지역들로 분포되어 들어가기도 한다.

조선족은 오랜 기간 주요하게 동북3성에 집중해 살았으며 인구수로나 분포지역으로나 관내지역들에는 아주 적게 살았는데 조선족의 문화교육이 발전함에 따라 분포지역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 1982년 제3차 인구조사 때 조선족은 이미 전국의 반 이상의 현, 시들에 분포되어있다. 최근 몇년 사이 관내지역들에 조선족들이 더욱 많이 분포되어 들어갔으며 조선족 인구도 2만여명이나 더 늘어났다.

2) 상대적으로 농촌인구가 적어지고 도시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인구의 분화, 도시인구의 출현 및 증가는 민족 발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다. 농촌인구가 점차 적어지고 도시인구가 갈수록 늘어나 민족 총인구의 반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현상은 일부 서방나라 학자들이 제기한 현대화한 나라의 다항표준의 하나이

다. 그러므로 도시인구 비례상황은 민족의 현대화와 발전의 표징이기도 하다.

조선족은 오랜 기간 주요하게 농촌지역들에 분포되어 있었다. 60년대부터 조선족의 도시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는데 80년대에 와서는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연변에는 1982년에 이미 조선족의 도시(진을 포함 아래도 같음) 인구가 조선족 인구의 반 이상을 넘었고 흑룡강성은 30%에 달했으며 요녕성은 30%를 초과했다. 1982년 이후 연변 일부 지역들의 현이 시로 바뀌고 관내도시로 인구가 많이 유동하면서 지금 도시에 분포되어 있는 조선족 인구가 총인구수의 반수에 가깝다(여기에는 호적 없이 도시에 장기적으로 거주해 있는 사람들도 망라됨).

3) 인구유동이 빈번하고 수량이 많다.

중국에서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고 농촌에서 토지도 거리책임제를 실시한 후부터 조선족 가운데서 인구유동현상이 날로 많아지고 있다. 1982년부터 1990년까지 내몽골, 관내지역들에 늘어난 조선족 인구 가운데서 2만여명은 유동인구에 속한다. 지금 북경시에 조선족 인구가 7,689명이나 되는데 그 가운데서 3,500여명은 이 몇 해 사이에 들어온 유동인구들이다. 조선족 인구증장률이 줄곧 다른 성, 지구보다 훨씬 높았던 흑룡강성이 (1953-1982년 사이 조선족인구증장률이 흑룡강성은 86.44%, 요녕성은 49.20%, 길림성은 46.30%, 연변은 36.93%였다) 1982-1990년 사이에 조선족 인구가 겨우 4.8%밖에 늘어나지 않았으며 전국 조선족 인구증장률(8.73%)보다 훨씬 낮은 주요한 원인은 유동인구가 많은데 있다. 또한 길림시(소속된 현들을 포함)의 조선족 인구가 1982년에는 168,827명이던 것이 1990년에는 166,474명으로 줄어들었는 바 8년사이 증장률이 1.4% 내려가고 인구가 2,353명 적어진 주요한 원인도 조선족의 인구유동에 있는것이다.

조선족인구분포의 변화과정과 현상태는 장래 분포변화의 모종 추세를 예시한다.

1) 조선족의 산거(散居)인구가 뚜렷이 늘어나는 추세

1982년 동북3성 이외의 기타 지역들에 산거해 사는 조선족 인구가 조선족 총인구수의 1.768%(31,234명/1,766,439명) 였는데 1990년에는 2.908%(55,857명/1,920,597명)로 늘어났다.(도표 3을 보라)

〈표 3〉 조선족 인구분포 지역비례 통계

	총인구	길 립	(길림성중의 연 변)	흑룡강	요 녕	내몽골	기 타
53년	1,120,405	756,026 67.477%	551,025 49.180%	231,510 20.663%	132,869 11.859%		
64년	1,339,569	866,627 64.694%	623,136 46.517%	307,591 22.961%	146,513 10.937%	18,838 1.406%	
82년	1,765,204	1,104,074 62.54%	754,567 42.77%	431,644 24.45%	198,252 11.23%	17,580 0.995%	13,654 0.785%
90년	1,920,597	1,181,964 61.54%	830,000 39.5%	452,398 23.56%	230,398 11.995%	22,641 1.179%	33,216 1.729%

2) 조선족인구의 도시화 추세

조선족이 비교적 집중해 사는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은, 도시의 조선족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동북 3성 이외의 27개 성, 시, 자치주 가운데서 조선족 인구가 1982-1990년 사이에 배나 두배 이상 늘어난 지역이 16개 성, 시, 자치주나 되며 도시인구가 약 2만명가량 늘어났다.

또한 길림시(소속현과 현급시를 포함)의 조선족인구가 1982-1990년 사이 2,353명이나 적어졌으며 시소속현과 현급시인구가 9,187명이나 적어진 반면에 길림시(시소속현이나 현급시를 포함하지 않음)의 인구가 6,834명 늘어났는데 그 가운데서 시의 3개 구(區)에 7,033명 늘어나고 교구에는 199명 줄어 들었다. 이러한 사실은 길림지구의 조선족들 가운데서 일부는 외성으로 유동하고 대부분은 길림시에서 유동하고 있으며

길림시교구의 조선족 인기도 유동하고 적어지는 상황임을 말해준다. 교하, 화전 두 현이 시로 되었지만 아직까지 현급시이고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대도시로 유동하고 있다.(도표 4를 보라)

〈표 4〉 길림시 조선족 인구 변화표

단위 : 명

	1982년	1990년	증감인구(명)
지구합계(地區合計)	168,827	166,474	- 2,353
외현(시)합계(外縣(市)合計)	138,136	128,949	- 9,187
영길현(永吉縣)	42,646	41,270	- 1,376
서란현(舒蘭縣)	29,609	27,053	- 2,556
반석현(磐石縣)	29,380	27,022	- 2,358
교하시(蛟河市)	27,690	24,819	- 2,871
화전시(樺甸市)	8,811	8,785	- 26
시구합계(市區合計)	30,691	37,525	+ 6,834
창이구(昌邑區)	6,428	8,605	+ 2,177
선영구(船營區)	4,910	7,892	+ 2,982
용단구(龍壇區)	6,129	8,003	+ 1,874
교 구(郊 區)	13,224	13,025	- 199

조선족 인구의 도시화 추세 가운데서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하나는 관내도시의 조선족 인구가 눈에 띄게 늘어나 140% 이상이나 증가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연해지구, 개방지구, 관광승지도 시들에 조선족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1982년부터 1990년까지 조선족 인구가 두배 이상이나 늘어난 광둥, 해남도, 산둥, 하북, 강소성은 모두 연해 개방지구이며 조선족 인구가 배 이상 늘어난 천진, 산서, 절강, 안휘, 복건, 하남, 호북, 광서, 귀주, 운남, 신강 등도 연해지구나 개방도시가 아니면 관광승지들과 관계있는 성, 시, 자치구들이다.

그러나 이 시기 내몽골(28.78%), 강서(16.79%), 호남(48.19%), 감숙(34.29%), 청해(26.44%)의 조선족 인구의 증장률은 50%이하이며 서장의 조선족 인구는 47.62%나 적어졌다. 도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5〉 성(省)별 조선족인구수, 1982, 1990.

지구	1982년 인구수	1990년 인구수	증장%	지구	1982년 인구수	1990년 인구수	증장%
북경시	3,909	7,689	96.69	하남성	505	1,099	117.62
천진시	828	1,788	177.25	호북성	669	1,874	180.12
하북성	1,759	6,250	255.32	호남성	222	329	48.20
산서성	527	1,085	105.88	광둥성	147	524	256.46
내몽골 자치주	17,580	22,641	28.79	해남성		70	
요녕성	198,252	230,378	16.21	광서장족 자치구	79	199	151.90
길림성	1,104,074	1,181,964	7.04	사천성	366	611	66.94
흑룡강성	431,644	452,398	4.81	귀주성	105	217	106.67
상해시	461	734	59.22	운남성	93	230	147.31
강소성	302	916	203.11	서장자치구	21	11	- 47.62
절강성	107	237	121.50	섬서성	653	1,056	61.72
안휘성	219	619	182.65	감숙성	417	560	34.29
북건성	51	113	121.57	청해성	242	306	26.45
강서성	131	153	16.79	닝하회족 자치구	186	321	72.58
산둥성	930	2,830	204.30	신강위클 자치구	438	1,037	36.76

- 주 : 1. 1982년 광둥성의 조선족인구에는 해남도인구도 망라되었다. 1982년후에 해남성이 설치되었다. 그러므로 1990년도 광둥성, 해남성의 조선족인구는 1982년 해남도를 망라한 광둥성조선족인구보다 304.08% 더 증다된 셈이다.
2. 1990년은 1982년에 비해 서장의 조선족인구가 47.62% 줄어들었다.
- [자료래원 : 1982, 1990년 전국인구조사수자에 근거하여 만들었음]

3) 조선족 노동인구가 流動轉移하는 뚜렷한 추세

민족 인구유동은 자연재해 등 특수한 정황을 내놓고는 민족경제문화가 일정한 정도로 발전하였을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노동인구의 유동은 더욱 그러하다. 이 몇 해 사이 조선족 노동인구가 성내나 성외 연해도시, 개방지구, 관광승지도시들로 전이하는 뚜렷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은 이런 도시에 가서 상업을 하거나 직장을 구하거나 음식점을 꾸리든가 여행사에 근무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서 호적이 없이 장기적으로 거주해 있는 인구가 많고 높은 학력(전문학교졸업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며 젊은여자들을 망라하여 청년들이 많은 것이 뚜렷한 특징이다.

3. 조선족 인구 및 분포발전 변화추세가 조선족 자체의 발전에 주는 영향

1) 조선족 인구가 완만한 속도로 온당하게 발전, 증장하는것은 <인구, 경제, 교육> 3자의 균형적인 발전에 이로울 뿐 아니라 중국의 조선족으로 하여금 경제발전, 문화교육발전 등 면에서 중국의 56개 민족중 앞장에 서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구발전 수준이 너무 낮아도 안 되며 장기간 인구교체 수준이 하에 머물러 있어도 안된다. 그렇게 되면 조선족 자치지방의 발전에도 불리하고 재빨리 노년형 인구유형에 들어서게 되며 조선 민족자체의 발전에도 불리하다. 예하면 1949년에 연변의 조선족 인구가 연변지구 총

인구의 63.36%를 차지하였는데 1982년에는 40.31%로 내려갔으며 1988년에는 40.69%로 조금 올라갔다가 1990년에는 다시 39.5%로 내려갔다가 1990년에는 다시 39.5%로 내려갔는 바 이는 역사상 제일 낮은 비례이다.

2) 조선족인구의 교육수준이 뚜렷하게 높아짐으로써 조선민족의 전반적인 자질제고에 이로울 뿐 아니라 조선민족이 계속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유리하고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그러나 조선족 가운데서 신체소질, 사회도덕 소질면에서 나타나는 일부 문제들은 조선족의 발전에 불리하다. 비록 조선족은 여러 소수민족 가운데서 불구자 인구율이 가장 낮은 민족(1987년에 3.50%, 불구자인구율이 제일 높은 이족은 7.55%)이며 불구자세대수의 비례가 가장 낮은 민족(1987년에 12.05%, 제일 높은 이족은 31.49%)이긴 하나 현대의 발전한 민족과 비할 때 그 비례가 아주 높다.* 따라서 조선족 가운데서 간암, 간병 등의 발병률과 사망률이 전국 평균수준보다 높다. 연변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연변에 1990년 한해 동안 병독성간염이 6,766건이나 나타났는데 발병률이 32.53/10만명으로서 1989년보다 32.47% 높다. 중국은 세계에서 간염발 병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인데 연변은 전국 간염발병률의 3배나 된다. 연변의 전염병 가운데서 간염이 1981년의 7.2%로부터 1990년상반기에는 64.38%로 올라갔다. 연변의 암병사망률은 1984년의 74.42/10만명으로부터 1986년의 82.47/10만명으로 올라갔으며 연길시의 암병발병률은 130.54/10만명으로서 전국평균수준인 83.83/10만명보다 훨씬 높다. 연길시의 간암발병률이 24.54/10만명인데 그 가운데서 조선족 남성발병률이 34.60/10만명이나 된다. 따라서 연변에는 해마다 2만여명이 암병으로 앓고 있으며 1만7천여명이 암병으로 죽고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충분히 중시를 돌려 제때에 대책을 댈

* 1987년 불구자인구 선택조사 자료에 근거했음.

로써 이러한 국면을 돌려세워야 한다. 더우기 신체건강에 해롭고 優生 優育에 불리한 풍속습관에 대한 개혁문제도 의사일정에 올려 놓아야 한다.

3) 조선족인구의 대량적인 유동 및 산거인구와 도시인구의 증가는 개인과 가정을 망라한 조선족 개체들이 재능을 발휘하고 수입을 높이며 생활수준을 높이는데, 그리고 조선민족의 전체적인 발전에 이로운 점들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또한 도시 조선족들의 제 3, 4대의 민족문화계승, 민족언어문자교육, 제민족 사이의 결혼, 민족의식의 보존 등 면에서 여러모로 불리하고 어렵다.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하는가 하는 것을 조선민족의 발전과정에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불가피한 과제이다.